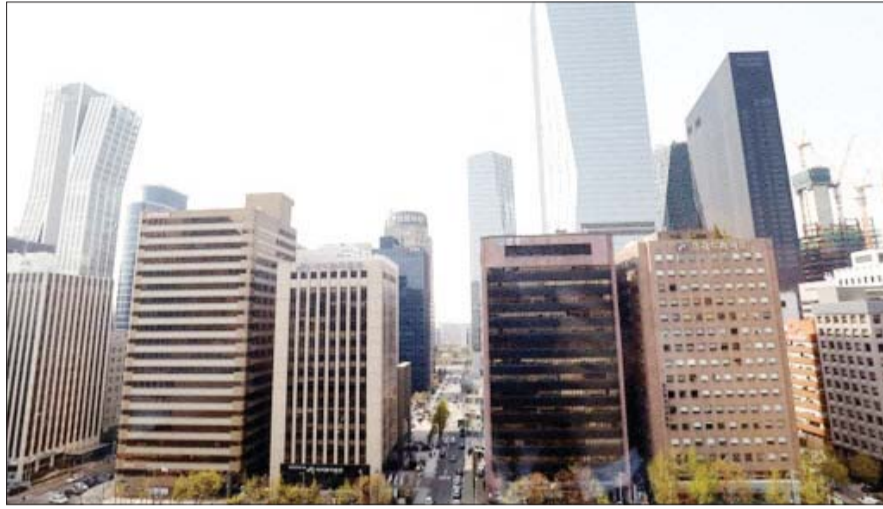


# 업황 악화에도 반등했던 증권주... “추세적 상승 힘들 것”

〈전문가들〉

규제완화 등으로 투자심리 회복  
부동산 PF 부실 등 우려 ‘여전’  
증권사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여의도 전경.

/뉴시스

업황 부진으로 지난해 약세를 보였던 증권주가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업황 악화로 증권사들의 실적 또한 부진할 전망이어서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14개의 증권주가 포함돼 있는 KRX증권 지수는 이달 들어 13% 가량 상승했다. 개별종목별로도 크게 올랐다.

한화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각각 22.98%, 18.69% 상승했다. 그다음으로는 한국금융지주와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15.76%, 14.10% 올랐으며, 미래에셋증권 또한 13.65% 뛰며 강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급감했고, 이에 더해 부동산 PF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증권주는 큰 부침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KRX증권 지수는

28.48%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전망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증권주가 반등에 성공했다.

이같은 상승 흐름 속에서도 증권주 투자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 데다가 향후 실적 전망 또한 어두워 추가 상승 동력이 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증권사들(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순이익을 전년 대비 41.9% 하락한 4381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남아있는 매크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증권업종 펀더멘털의 빠른 회복 가

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당분간 핵심 영업지표들의 바닥 다지기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심리 개선에도 거래대금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투자은행(IB) 자문 수수료 또한 상장 예정 기업들의 연기 및 철회가 이어지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정민기 연구원은 “향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는 유동성 리스크보다는 신용 리스크에 집중될 전망”이라며 “유동성 리스크의 경우 연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신용리스크는 완화의 전제 조건이 기초자산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내달 MSCI 편입 종목 관심... 카카오페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예상 FCP, KT&G 주주총회 안건 공식 접수

내달 10일 MSCI 지수 정기변경 발표  
신규 편입시 패시브펀드 자금 유입

오는 2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종목 정기 변경을 앞두고 신규 편입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 종목으로 편입될 경우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의 2월 분기 리뷰에 따른 종목 정기 변경 결과가 오는 2월 10일 발표된다. 리밸런싱은 2월 28일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포괄적 분기 리뷰 방식이 도입된다. 그동안 2, 8월에는 상대적으로 간소한 분기 리뷰를 진행했고, 5, 11월에 종합적인 분기 리뷰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2, 5, 8, 11월 모두 동일한 규칙에 따라 분기별 종합 지수 리뷰를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페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편입을 예상했다. 단, 카카오페이의 편입 확률은 높음(High),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립(Mid)이

〈MSCI 2월 리뷰 예상 편입 종목〉

(십억원, %, 일)

코드	이름	섹터	확률	시가총액	예상 비중	예상자금 유입액	수급강도 (DtC)
A377300	카카오페이	정보기술	High	9,390	0.19%	91	1.01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업재	Mid	4,061	0.28%	135	2.016

/다올투자증권

라고 밝혔다.

허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 편입 시 예상 유입자금 규모는 825억원으로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 1.3 배로 상당히 편입 당일 인덱스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로서는 상향 편입 가능성이 낮지만 편입된다고 가정할 시 예상되는 유입자금 규모는 336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MSCI 정기변경에 따른 인덱스 효과에 주목하라고 밝혔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MSCI 정기 변경에 대한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고, 수급도 선반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최근 패시브자금의 흐름(flow)을 보면

신흥국 선호도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신흥국 주요 패시브 자금 유입액과 설정좌수가 1월 들어 크게 급증했다”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같은 편입 예상 종목이지만, 서로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카카오페이는 직전 리뷰 때 유동시가 총액 파이널 요건에서 탈락했지만, 시가총액이 컷오프 이상인 심사 대상 종목이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톱갭 구성 종목이지만 스톱갭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컷오프 이상인 심사 대상 종목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차석용·황우진 사외이사 추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lashlight Capital Partners·FCP)가 오는 3월 열리는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이사과 황우진 전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어 인사공사 분리상장, 주주환원 및 거버넌스 정상화 등 안건 제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FCP는 ‘KT&G 주인있는 회사 만들기’ 캠페인을 공개하고 12월 온라인 주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 대상 소통을 진행했다. 주주설명회 당시 제안한 대표이사와의 공개토론, 이사회 미팅 등이 경영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자 공식적으로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해 주주제안서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FCP는 인사공사 분리 상장을 제안했다. 담배 업종 특성상 투자가 어려운 기관이 많은 만큼 인사공사가 글로벌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담배회사에서 인사공사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형태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사공사가 분리되면 약 4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주주환원 정상화를 위한 주당 2

만원(배당, 자사주매입 각각 1만원)의 주주환원과 분기배당 및 약 15% 이상을 차지하는 자사주 소각도 제안했다.

이상현 대표는 “KT&G가 현재 보유한 6조원이 넘는 현금화 가능 자산은 지난 15년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은 탓에 쌓인 것”이라며 “KT&G가 2021년에 발표한 주주환원 계획은 현재 보유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잉여금과 적립금을 합산하면 약 7조원에 달하는 만큼 총 2조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주주환원은 절대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관 변경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재 분기 배당은 연말 및 분기 배당만 가능하게 규정돼 있어 분기 말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분기 말 배당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분기배당은 현재 글로벌 동종기업인 필립모리스, BAT, 알트리아와 국내 삼성전자, SK텔레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등 많은 회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정관 변경도 함께 제안했다. 현재 해당 권한은 이사회에게 있다.

/박미경 기자

## DL이앤씨·카본코, 베트남서 탄소광물 사업 추진

베트남 국영 기업과 협력 약속

DL이앤씨와 카본코가 베트남에서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DL이앤씨와 카본코는 하노이광업지질대학교,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 강원대학교와 ‘탄소광물 사업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과 상업화 협업’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의 기술 이전부터 현지 사업화를 목표로 발전소 및 광산을 보유한 베트남 국영 기업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영호 카본코 사업수행실 부장(왼쪽부터)과 김동현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 실장, 최성웅 강원대학교 부총장, 탕 하이 쩐(Thanh Hai Tran) 하노이광업지질대학교 총장, 안지환 탄소광물화 플래그십사업단 단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L이앤씨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족한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다.

탄소광물화 기술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나 건설 공사 과정에서 나

온 폐콘크리트 등을 포함한 탄소와 반응시킨 뒤 저장 및 활용하는 기술이다.

DL이앤씨와 카본코는 이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골재와 건축자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탄소저감은 물론 원가절감도 실현 가능하다.

/김대환 기자

## 현대건설, 작년 매출액 21조... 17.6% 증가

영업이익 5820억... 22.5% 감소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간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누적기준 매출액이 21조 2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2.5% 감소한 4850억원을 기록했다.

신규수주의 경우 35조 425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7% 증가해 연간 목표치 대비 124.9%를 달성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무엇보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